

우수상

Fake News Hunters

▶ 권세하(낙원중학교), 한예서(신백현중학교), 이준용(보평중학교)

리포트

당신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준비가 되었나요?

영 상

‘반려동물 월 양육비 13만원
보도의 근거와 현실 사이’



팀 소개 인사 및 각오

안녕하세요. Fake News Hunters입니다. 가짜 뉴스는 시대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뉴스의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가짜 뉴스를 찾아내겠다는 팀의 목적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사냥한다'는 표현을 통해 저희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Fake News Hunters로 팀 이름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커톤 활동을 통해 우리가 제작한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에도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팀명을 영어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커톤 활동을 통해 우리부터 가짜뉴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우리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당신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준비가 되었나요?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반려동물 월 양육비 13만원 보도의 근거와 현실 사이’라는 주제로 기사의 내용을 팩트체크 하려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또 다른 가족을 입양한다는 것과 같기에,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올바른 양육비 소비계획을 세워 자신이 잘 양육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또한, 미디어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팩트체크를 해보기로 결정하였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이다.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인 펫코노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펫을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팸족이 늘어나고, 반려동물을 인간화하고 있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경제와 관련 지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여러 조사기관에서 다양한 통계를 내어놓고 있지만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통계청이나 리서치 자료들에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조사해보려 한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반려동물 양육비용에 관한 조사

- 반려동물 양육비용 월평균
- 반려동물 양육비용 지출 내역
- 반려동물 양육비용 지출 내역 중 세 가지 조사

2. 팩트체크 시 사용할 자료와 방법

- 뉴스 및 신문기사 : 관련 자료 검색
- 책: 빅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사업과 미래
- 논문: 한국콘텐츠 학회 논문지 [반려동물 양육지원과 정책요구에 관한 연구]
- 리서치자료: 2023 반려동물 보고서 KB경영 연구소, 마이크로밀엠브레인 리서치 보고서 [반려동물 양육경험 및 펫프리미엄 시장 관련조사]
- 통계청: 관련 자료 검색
- 전문가 인터뷰: 병원비, 미용비, 의류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진행
- 설문조사: 주위 실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대상 설문(구글폼)

체크해보기

① 찾아보기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반론의견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미션기사 1) 연합뉴스, “반려동물은 가족’ 펫이코노미 시대…1인당 35만원 카드 지출”, 연합뉴스, 2023년 4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6023100002>

요약 반려 동물 시장의 연평균 인당 카드 이용액 추이를 2019~2022년 까지 조사해 본 결과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5.3만원으로 2019년에 비해 9.1만원이나 증가하였다. 또한 펫 이코노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신규 가맹점수가 2019년에 비해 48프로 증가하고, 특히 애견 호텔과 교육 목욕 카페등의 전문 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제공 자료>

미션기사 2) “반려동물 양육비용 월평균 13만 원” 유기동물 입양 의향도 높아, KBS뉴스, 2024년 1월

<https://tv.naver.com/v/45800067>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쓰는 총 양육비용(서비스나 사료, 병원비 모두 포함)은 한 마리에 월평균 13만원, 20대 가구의 양육비용은 평균 18만원, 1인가구의 양육비도 15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음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은 동물병원이 80%, 반려동물 미용 52%, 반려동물 놀이터 33%, 반려동물 호텔 16% 순으로 나타남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된 계기는 지인에게 무료로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응답자의 18%는 양육을 포기할까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예상외의 과다 지출이 40%로 나타남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71% ->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

반려견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

열악한 사육 환경도 동물 학대로 인식 多 동물 학대에 대한 감수성 높음

관련 사이트 조사

미션기사 1)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1

농림축산 식품부<동물보호국민의식 조사결과> 2023.02.02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 비용 통계 자료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2

통계청 <2023. 2022소비자 물가상승률-대한민국> 통계청의 2022, 2023년 물가지수 통계자료

미션기사 2)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1

2022 농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강아지: 18만 2600원, 고양이 13만 7600원 (동물 간의 양육비차이가 크다)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2

통계청: 대전광역시 사회조사(2023년)

반려동물 월 양육비용의 비용으로 10만 7천원의 금액이 집계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3: 충청북도 사회조사

① 반려견기준 5만원 미만이 49%를 차지하고, 5만원~10만원은 29.7%, 10~15만원 미만은 13.7%가 집계되어 92.4%의 사람이 15만원 미만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평균은 10만원아래 예상)

② 개 13만7천원, 고양이 13만 5천원, 기타 3만2천원 (종별 금액제시)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4

2023 반려동물보고서 KB 경영연구소

- ① 지난 2년간 반려가구 중 73.4%가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지출한 경험 보유,
- ② 정기검진이나 X-ray, CT, MRI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 검진’ 지출이 가장 많음
- ③ 반려가구 중 지난 2년간 반려동물의 진료나 사고, 상해, 치료 등을 위해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73.4%, 치료비를 지출했던 반려가구는 평균 78만 7천 원을 지출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5

Average monthly costs of pet ownership in South Korea

① 평균의 속임수 : 양육비 5만원미만은 28%, 20만원 이상은 24%

② 이 통계의 평균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로 전달될 수 있는지 의문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6

Really cost?

- ① 처음 입양 시 드는 비용과 매년마다 드는 비용을 구분
- ② 기본비용과 프리미엄 제품의 비용을 평균이 아닌 구간으로 제시
- ③ 각 항목별로 지출금액을 볼 수 있어, 지출내역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시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7

How Much Will You Spend on Your Dog in His Lifetime?

반려동물(개)의 크기에 따라 다른 비용제시 및 기대수명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8

The Cost of Dog Parenthood in 2024

- ① 반려동물 중 개의 양육비용을 범위로 알려줌(평균이 아님)
- ② 기본항목을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Additional cost 제시



1.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 연구소 수의사 - 권세하

Q1. 애완견의 경우 필수적으로 맞혀야 하는 백신의 종류와 그 가격은?

-> 종합 백신(홍역 외 4가지 주사약 25,000원)
 기관기관지염(10,000원), 코로나 장염 (20,000원)
 광견병 (관내 접종 1년에 한 번씩 5,000원), 컨넬 코프 (15,000원)

Q2. 그 외의 권장하는 예방접종이나 수술은?

-> 중성화수술 (300,000원~500,000원 <성별에 따라 상이>)
 내부기생충 알약 3개월 한 번 (1년 기준 50,000원)

심장사장충 꾸준히 한 달 한 번씩 알약 - (12알 150,000원 정도)

노년기 건강검진 7~8세 이후 1년에 한 번 (한 번에 30,000)

Q3. 반려견을 키우는데 드는 의료비에 대한 생각은?

-> 초기에는 중성화 수술비 40만원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30만원이 들어간다. 노년기부터는 정기검진 비용도 들어가 일 년에 3만원 정도 더 지출하게 된다. 보험을 든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애완견의 미용에는 관심이 있는데 병원은 전조 증상이 있어도 오지 않는다. 갑자기 죽는 아이들이 그런 원인일 수 있다.

항암 치료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오래 살지는 못한다. 심장이 아픈 아이들도 있고 눈이 아픈 경우, 안약 같은 걸 넣게 되는데, 약을 조제할 경우, 조제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실제 약의 값은 비싸지 않지만, 약이나 조제비 등이 모두 의사의 재량이고, 동물 약들은 보험이 안되니까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다. 병원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더 가중된다.

2. 분당구 반려동물미용샵 살롱 드 보떼 대표에게 인터뷰 - 한에서

Q. 대중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키우는 말티즈의 미용비와 미용을 받는 주기는?

(최경선, 『빅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산업과 미래』, 박영스토리, p.60)
 -> 미용받는 횟수는 키우는 사람의 취향, 말티즈의 크기, 나이 등에 따라 다르다. 보통의 경우 3개월 정도 주기로 미용을 위해 방문을 한다. 2살, 3kg 정도의 말티즈의 경우 기계 미용비는 6mm 기준 60,000원, 전체 가위 미용비는 110,000원이다.

3. 온라인 애견샵 (https://m.taaffeplace.com) 윤송곤 대표 인터뷰 - 이준용

Q1. 온라인 샵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애견 용품은?

-> 간식과 의류

Q2. 예전 보다 눈에 띄게 많이 팔리는 용품은?

-> 유모차와 이동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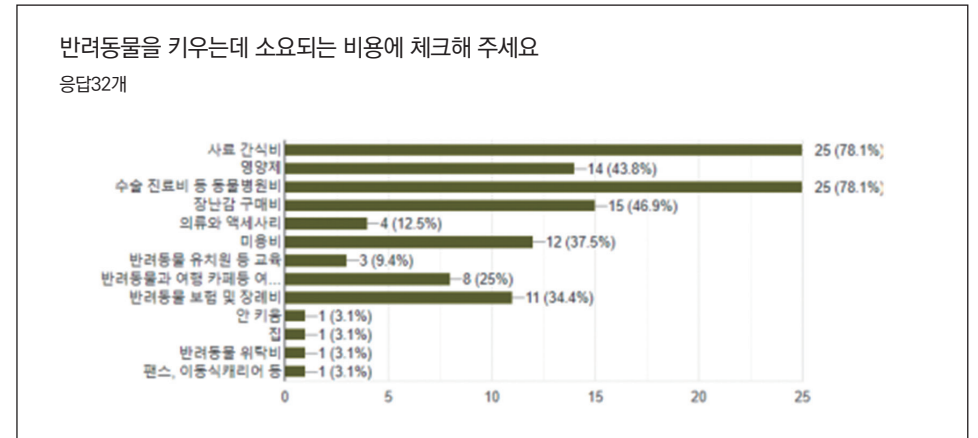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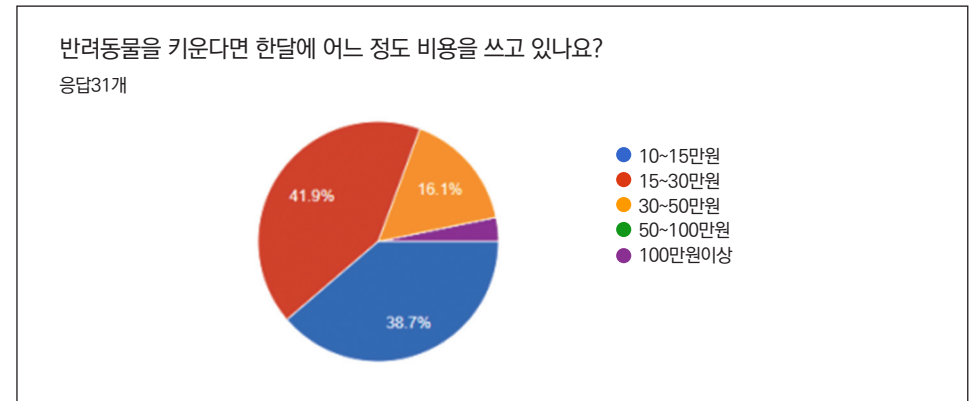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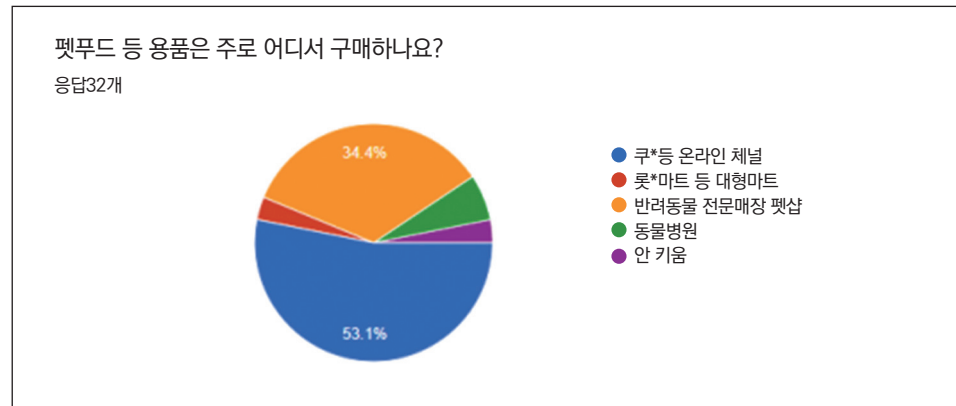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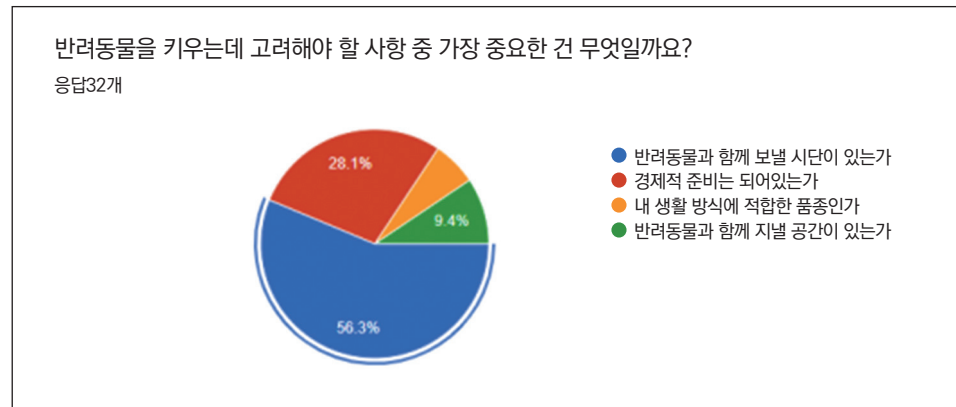
Q3. 5년 전에 비해 애견 산업에서 달라진 점은?

-> 5년 전에 비하면 확실히 애견 용품에 투자하는 비용이 커졌으나 그만큼 애견 관련 브랜드도 많이 생겨서, 사라진 브랜드도 많다. 의류 같은 경우 본인 옷을 못 사는 욕심을 강아지를 통해 풀고, 이를 예쁘게 꾸미고 인스타로 자랑하는 과시용이 큰 것 같다.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

양육비용 설문 조사(구글폼 이용)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 반려동물 양육을 결정할 시 28.1%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 고려
- 구매처 1위는 온라인채널, 응답자의 50% 이상 1위로 뽑음
- 45.1%의 사람들이 15~30만원, 38.7%의 사람들이 10~15만원이라고 응답
- 16.1%의 사람들은 30만원~50만원이라고 답한 걸로 보아 참고한 기사의 평균 비용 13만원보다는 높은 평균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
- 32명의 응답자 중 한 명은 1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했는데 반려동물이 아픈 것인지, 펫서리 트렌드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점이 아쉬움
- 응답자 수가 적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료·간식비와 병원비에 대한

지출이 높다고 나타난 점, 그리고 월평균 비용의 분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표본이 더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우리의 소규모 조사도 전체적인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봄.



반론

1-1)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겨 이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근거 17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고객의 동물 병원, 애견 호텔, 애견 카페, 애견 미용 가맹점 등에서 1인당 연평균 이용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5만 3천원으로 2019년의 26만 2천원에 비해 9만 1천원 늘었다. 2020년에는 28만 3천원, 2021년에는 31만 3천원으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1인당 연평균 카드 지출액은 매년 늘고 있다.

반박 이 통계 자료는 신한카드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금이나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지출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약 15만원으로, 신한카드가 제시한 연평균 35만 3천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재반박 이러한 차이는 설문 표본의 크기 차이와 신한카드 고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조사 결과는 모두 해마다 양육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비 상승이라는 전반적인 경향은 유의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하지만 반려동물 양육비용의 증가 추세를 이해하는데 참고할만한 자료로 볼 수 있다.

1-2)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반려 동물과 관련한 소비를 지출한 고객의 비중이 늘고 있다.

근거 반려동물과 관련해 카드 지출한 고객 중 연평균 30만원 이상 지출한 고객의 비중이 전체의 28%로 전년의 25%보다 3%(p) 증가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신규 가맹점 수의 증가율은 지난해에 2019년보다 48%나 증가했다.

반박 물가가 3.8%가 증가했으므로 당연히 사용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이다. 오히려 3%만 증가했으므로 오히려 물가 대비 감소했다 할 수 있다

재반박 물가 상승률만으로는 실제 가계의 지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해서는 소득 증가율과 비교하여 지출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실질 소득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많은 가구에서 소득 대비 반려동물 양육에 할애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양육 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근거 애견 호텔과 애견 교육은 각각 211%와 275%, 애견 목욕과 애견 카페는 각각 144%와 50%가 급증해 개와 고양이가 특급 대우를 받으며 명실공히 반려동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박 가족처럼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할 때, 미용이나 교육 같은 부분은 당연히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인데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급 대우라고 지칭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이러한 소비가 사치라는 선입견에서 나온 의견으로 보인다.

2-1)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월 양육비용이 강아지 16만 6000원, 고양이 11만 3000원으로 평균 13만원이라고 발표

근거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반박 반려동물의 양육비용이라고만 제시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종에 따라 비용이 크게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만 보아도, 강아지와

고양이 사이에는 약 5만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3)

2-2) 양육비 산출 시 포함된 항목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근거 한 마리에 월평균 13만 원(병원비가 4만 3,800원)이라고만 기재.

반박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의 비용이 어떠한 조건에서 쓰이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조건 기재 필요. 예를 들어 병원비 4만 3,800원에 포함된 것은 무엇인지, 필수 예방 접종비는 포함이 되었는지, 예방 접종비는 견종이나 몸무게와 무관한지 등이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2-3) 반박 월평균 금액만을 제시하고,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은 크기에 따라서나, Lifetime에 대해서도 다른 소비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대형견과 소형견의 기대수명이 다르고 그에 따라 월평균 지출 비용이 다르다. 사료값이나 이·미용 비용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 분양비부터 초기 접종비 등 바로 태어난 경우, 늙어서 병이 들거나 한 경우 더 많은 병원비가 들 수 있기 때문이다.(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6)

2-4) 반박 요즘 펫팸족은 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additional 비용에 더 많은 비용을 할애할 수 있다. 다른 통계에서는 그런 비용들을 세분화하여 기본적인 비용과 Exter 혹은 Additional 비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팩트체크 근거자료 8)

2-5) 반박 단순한 월평균 비용은 속임수 일수 있다.(팩트체크 정보 근거자료 5)

양육비 5만원 미만은 28%, 20만원 이상은 24%

2-6) 반박 월평균비용 제시 외에 다양한 사람의 관점 제시할 필요가 있다.

펫 럭셔리 트렌드, 양육비의 부담으로 파양을 고려하는 반려인 등 펫코노미에도 소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월평균 비용 제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반론을 재반박하는 근거

1. 특정 자료라 해도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그렇듯 표집 집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으나 표본 신뢰 없는 자료라 할 수 없다. 표본 집단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 수 있다.

-> 통계청·통계별 질문 - 대표성 있는 표본 질문은 어떻게 구하나요?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502150100&bid=3246&act=view&list_no=161955

2. 물가가 증가한다고 무조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2021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률 13% 육박... 소비증가율 5%p↓

https://www.g-enews.com/article/Finance/2024/05/202405271309131144bbed569d68_

3. 월평균 비용 산출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비슷한 통계를 보이는 조사가 많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기사라 볼 수 있다.

2023 반려동물보고서 KB 경영연구소

Average monthly costs of pet ownership in South Korea

4. Exter나 Additional 부분까지 포함시켜 평균을 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따로 기재하는 것이 맞으므로, 평균을 이야기할 때에는 제외시켜도 무관하다.

5. 다양한 종을 고려하지 못한 조사이지만 암묵적으로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에 관한 조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파충류나 어류의 포함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결론 작성하기

이 팩트체크의 기획 의도는 반려동물 양육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된 ‘월 13만원’이라는 수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제 양육 현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월 13만원이라는 수치는 평균적인 비용으로 타당성이 확보되나 실제 양육에서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반려동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일부 사례에 국한된 자극적인 기사를 지양해야 한다. 양육비용에 대해 제시할 때, 동물의 종류, 크기, 품종, 나이, 건강 상태, 생활환경, 지역, 주인의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리고 그에 바탕한 구체적인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서는 동물의 전 생애주기(Lifetime)에 걸친 세부적인 지출계획이 필요한데 입양 직후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식비, 용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에 대한 안내도 필수이다.

또한 입양을 계획하는 사람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뿐 아니라 지속적인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인 준비가 되었는지 충분히 고민하여 입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수명을 고려하면, 긴 시간 동안 가족처럼 함께 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 콘텐츠

‘반려동물 월 양육비 13만원 보도의 근거와 현실 사이’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펫코노미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수도권 반려동물 양육자 3,802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1,260명이 어려움 1위로 비용을 꼽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를 찾아보고, 통계 자료 및 설문조사,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팩트 체크를 진행해 보았다. 현대 사회는 비용 문제로 유기견이 발생하는 반면 반려동물에게 명품을 입히는 펫서리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우리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소비의 주체로서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산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 팀은 입양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입양에 앞서 경제적 비용과 현실적인 양육 상황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 이를 위해 미디어는 일부에게만 적절한 한정된 정보나 자극적인 기사보다는, 다수에게 유용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영상을 통해 반려동물의 입양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입양을 결정하고 준비해서, 행복한 반려동물 가족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 상세설명

#1 이 영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단순히 사료비나 병원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상외로 그 외의 돌봄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온라인 펫샵 대표와의 인터뷰에서도 요즘에는 단순히 먹고 잘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돌봄을 위한 아이템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뉴스의 시작) 현대 사회에서 펫코노미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양육 비용은 양육을 지속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우리는 반려동물 한 달 양육비가 13만원이라는 기사를 소개하고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실제 반려동물과 양육비용에 관한 내용을 팩트체크 해보겠다.

#3 (기사소개) 2024.01. KBS뉴스 기사를 소개했으며,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 비용은 13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사에 따르면 양육자 중 18%는 양육 포기를 고려한 적이 있으며 그 이유 중 40%가 예상외의 과다 지출로 인함으로 보도하였다.

#4 (팩트체크 1) 뉴스에서 제공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가?

KBS뉴스가 참고한 2023년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와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KB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의 반려동물 월 양육 비용 조사 내용을 비교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상의 차이로 인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세조사 모두 13~15만원 내외의 월평균 양육비용이 든다는 것으로 보아 KBS 뉴스 보도는 월평균 양육 비용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팩트체크 2) 집단의 통계로 나온 월평균 비용을 상황이 다른 모든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월평균 양육비 5만원 미만 사용 가구수는 28%, 20만원 이상은 24%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평균내면 13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입양을 계획하는 사람은 단순히 평균 금액만 참고하기보다는 양육비용 및 병원비 그 외의 자신의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한다.

#6 (팩트체크 3)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한다.

양육비용에 관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을 제시한 해외 기사를 소개한다. (ANOMAL OUTFITTERS 2019.10) 이 기사를 통해 미디어가 단순 양육비용의 평균만을 제공하기보다, 입양 시기와 양육 기간의 양육 비용, 반려 동물의 종류와 크기 또한 선호하는 상품 등에 따라라도 양육비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미디어는 예비 양육자가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 경제적 요소와 함께 반려 동물을 양육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펫서리라는 말이 생긴 반면, 유기되는 동물들도 많은 것처럼 반려동물 양육은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 반려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양육 비용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인터뷰 결과 반려견의 수명은 10~20년 이상으로 이처럼 긴 시간 동안 가족처럼 함께 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동물 복지 연구소 수의사 인터뷰)

#8 (뉴스의 마무리) 반려동물의 입양을 준비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소비계획과 입양 계획을 가지고 입양해야 하며, 생명 존중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입양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는 일부에게만 유용한 한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홍보 및 캠페인 활동

1) 1차 홍보 및 캠페인 활동(2024.09.18.)

우리 팀은 '당신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준비가 되었나요?'라는 제목의 전단지과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책임감과 경제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당신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준비가 되었나요?

-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이 있나요?
- 반려동물과 함께할 (돌봄, 운동, 교육) 시간이 있나요?
- 지속적인 비용을 감당할 재정적인 준비가 되었나요?
-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였나요?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 동안 책임 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요!



2) 2차 홍보 및 캠페인 활동(2024.09.21.)

우리 팀은 '당신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준비가 되었나요?'라는 제목의 포스터와 제작한 영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입양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반려 동물 월 양육비용
기관별 조사 내용 비교

조사 대상	반려견에 쓰는 양육비용	반려묘에 쓰는 양육비용	반려동물에 쓰는 양육비용
KB금융(2023)	~150,000원	~120,000원	~135,000원
KB경영연구소(2023)	~140,000원	~110,000원	~125,000원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여의조사(2022)	~160,000원	~130,000원	~145,000원

당신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준비가 되었나요?

입양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적합한 공간이 있나요?
- 함께할 시간이 있나요?
- 재정적인 준비가 되었나요?
- 모든 가족이 동의하였나요?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 동안 책임 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요!



3) 온라인 홍보

우리 팀은 '반려동물 월 13만원 양육비 보도의 근거와 현실사이'라는 제목의 뉴스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이메일을 보내 해당 영상의 공유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https://youtu.be/nmE4EVNBbK8?si=0rEPU9TdLWKoV6Mk>



권세하

저희 집에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근처에 강아지 유치원이 있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반려동물을 픽드랍하는 반려인들을 봅니다. 평소에 반려동물의 간식과 용품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한 달 양육비가 13만원이라는 기사를 보며, 실제로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팩트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에 있는 반려동물은 사료비, 간식비, 병원비 정도의 지출이 있으나, 매일같이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예쁘게 미용을 하고 다니는 반려동물을 보면 생각보다 지출의 차이가 큰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팩트체크 활동을 하면서 뉴스도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한 부분의 자극적인 것만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놀라운 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많은 자료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 값의 가운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알게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나, 평균의 속임수가 적용된 수치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료를 접할 때는 그 출처와 도출 방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 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길거리 인터뷰와 저작권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뉴스, 인물의 초상권, 영상 등에 대한 저작권을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직접 양육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사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동물복지재단의 수의사님 인터뷰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건도 중요하지만, 10년 이상 긴 시간 함께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내용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펫렉서리문화도 있지만, 구조활동까지 벌어거나, 유기를 당하는 반려동물도 있다는 점이 상반되며 반려동물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이 팩트체크 활동이 다음에 제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용

요즘 반려동물이 파양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팩트체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는 불편함 중 양육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용은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지만, 사람마다 사용하는 물품과 서비스는 천차만별이라 일관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뉴스와 통계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저 스스로도 새로운 시야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일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흘러가지만, 그 모든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넘어, 진실과 허구를 가리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에 대해 사람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은 입양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보다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한다면, 사람들이 양육비용과 책임을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간의 긴 여정을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이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팩트체크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에서

저는 뉴스 기사를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의 산타를 믿었던 것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커톤 대회를 통해 기사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를 찾아 반박하고, 비슷한 주제의 해외 기사를 찾아보고 비교하는 활동을 하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자주 제시하는 통계 수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된 것일까,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등 다양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제시된 수치를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영상 제작을 위해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터뷰하고 마트와 같은 열린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갔을 때 친절하게 응해주었던 사람들 덕분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예방접종이나 건강 검진이 생각보다 비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즐거움에는 많은 책임과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커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결과물을 보니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어렵게 보이기만 했던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저희들의 노력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 것을 보니 감격스럽습니다.